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1년도 '전반기 충현장학생' 확정

총 156명의 천국일꾼, 3월 2일 충현기도원에서 장학훈련

'천국일꾼 양성'을 목표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충현교회가 2001년도 전반기 장학생을 확정하였다. 장학장학회는 그 동안 서류와 시험,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156명을 확정지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영적인 지도자로 자라나도록 온 성도들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겠다. 특별히 이번 전반기에 선발된 장학생들 중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장학훈련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참석자들은 별도로 준비된 좌석에서 금요집회를 함께 드린 후 기도원으로 들어가 특강 및 훈련을 받게 된다.

일시: 2001년 3월 2일(금요일) 금요집회부터 / 대상: 선발 장학생 중 대학, 대학원생

전역 장학생(13명)

정운주	김병현	오용진	정안나	염대산	이희주
강진주	이성혜	권영일	고병석	오지영	장상원
조운정					

고대학생(40명)

김한나	허민경	유미나	김소연	김용경	유종훈
노미소	김문철	이신화	박하얀	최 웅	한영호
한다경	김진영	장혜선	장우리	홍순연	이봉호
이대오	이보람	정하진	이혜혜	정하나	곽현우
강문구	강분희	김용진	임영민	신성철	김희숙
김정훈	이대복	김지숙	임병환	이동수	서영은
이태호	송용구	김소연	이사라		

대학원(10명)

이종원	이세진	박지현	이종민	이희경	엄정립
최지영	박현경	김성자	김수정		

대학생(66명)

기윤경	신미란	신상훈	이상급	조혜진	노성현
이덕용	추승민	정하나	구자의	이미연	최광자
김민	최은진	장혜영	김소희	안지연	조인선
박우영	류현실	이원석	이정훈	이평희	장미연
조성희	김요한	우지혜	조연주	배상희	이혜수
고혜영	박경옥	홍 의	박순미	최윤영	조현숙
권진연	박성진	김은선	신보경	백희연	이복순
이수은	장정은	이아슬	양원구	권성재	장국용
김혜진	오경희	이원정	유지성	배지혜	이여진
김희정	김민철	한유리	윤지원	노상진	김진희
황성희	채길원	한수영	이유미	변강진	김사뭇

중학생(14명)

이다정	김예진	이진구	강 진	우가원	이지연
정환은	김홍미	장혜진	염세복	박지영	이상훈
김지혜	한성호				

목사후보생(12명)

김영진	김경배	박철홍	윤정훈	이길찬	이성욱
이수경	김성경	민병윤	오태구	유성철	송요한

위탁장학생(1명)

김태우

107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2001년 제4차 학습·세례식

기독교회가 베푸는 세례는 결코 인간에 의해 고안되거나 주도되는 예식이 아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임을 선언하시는 일이며, 그의 자녀됨을 보증하시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세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세상을 버리는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도록 간구하는 일이다. 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헌신하도록 기도해야 할 일이다(행8:17).

모든 찬양예배시에 학습·세례를 받게 될 이들은 모두 107명으로 학습 26명(남13/여13), 세례 48명(남22/여26), 유아세례 25명(남11/여14), 입교 9명(남6/여3)이다.

3월 위임목사 설교

일시	예배	본문	제목
3월 4일	2·3·5부	고전 11:26	주의 죽음을 전파함
3월 11일	3·5부	행 12:5	긴급히 기도하는 교회
3월 18일	1·3·4부	행 16:25	고통 중의 찬송
3월 25일	3·5부	마 6:24	두 주인

신학 칼럼

교회의 정의

그리스 말로 교회는 '예루셈시아'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주로 고백하는 선택받은 무리들(공동체)'을 뜻합니다. 이는 전쟁사가 시장에서 왕이나 장부의 사신을 납득하면 그 외치는 소리를 따라 사람들이 시장으로 나아가고 그 사신에 복종했듯이, 혹은 징집관이 소도시에서 와서 어떤 큰 임금의 병사가 되기를 권하고 충취할 때 젊은 지원병들이 그 전하는 말에 따라 몰려들었듯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곧 "모두 다 내게로 나오라"는 이 세상 구세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며 이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인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 얻어진 군대, 그가 '값주어 산' 이 무리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홀리신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새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씻기어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될 수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의미를 뜻하는 하나님의 거대으로 한 번 결합하면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인제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전 12:27) 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지체" (고전 12장, 롬 12장)라 하였습니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지체라면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 즉 생체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성과 그 사명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 성기(목사, 10교구지도)

2001년 제4차 성찬식

주의 죽음을 전파하며

다음 주일 1부예배부터 5부예배에 걸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로노니

전반기 주간성경공부 개강

"주의 만찬은 참으로 엄숙하고도 행복한 축복의 상이다. 이 만찬상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부탁하신다. 주의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해 대하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바울은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의 죽음은 우리와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놀라운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것이다"(다음 주일 매시지 중에서).

다음 주일에 배례유절 성찬을 위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최원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과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오심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성찬의 식탁으로의 초청은 커다란 특혜이지만 주의 죽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취하시는 일이었다. 태초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언제나 묵상하셨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추구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사하는 일이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반기 주간성경공부가 3월6일부터 개강된다. 말씀 안에서의 회복과 헌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와 말씀이 베풀게 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 각 성경공부반에 대한 소개는 아래와 같다.

과목	시간	강사
전도서	화, 오전10시	김동하
갈라디아서	화, 오전10시	김영호
코로새2:10	화, 오전11시30분	류병희
갈라디아서	화, 오후7시30분	김영호
코로새1:13	수, 오후12시30분	이종대
코로새1:13	수, 오후12시30분	이준경
코로새1:13	수, 오후12시30분	김진식
시편	수, 오후12시30분	임영덕
열왕기하	수, 오후12시30분	여성기
베로사서	수, 오후12시30분	사경진
로마서	수, 오후12시30분	노경택
일론서 성경만	수, 오후12시30분	송환학
디모데전(로마서)	수, 오후2시10분	임혜숙
에스겔	수, 오후2시10분	여국근

*구역별 영성훈련 실시기간(3월 25일 - 5월 13일) 중시변경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 오후 1시 50분
수요일 오후 2시 10분 ~ 오후 3시 30분

Proclaiming Our Lord's Death

(1 Corinthians 11:26)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The Lord's Supper is a really solemn and happy blessing table. At this table Jesus asks us to remember His death. Whenever we remember His death we have to remember our sins and God's wonderful love. What Paul received from the Lord was delivered by him to God's people. He tells us,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 11:26). Paul explains that the redemption of the cross and the death of Jesus Christ is for us and for others. When we take His love we are to give it to others. Christ's death isn't just for our wonderful redemption. It is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so that they can receive the same blessing. Let's focus our attention on what Jesus' death truly means to those of us who partake of His Table.

Jesus' death shows us the problem of sins. Paul emphasizes,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 15:3). Amen! Jesus' death is really for our sins. The Bible clearly explains this truth: Jesus died for our sins. Look at Matthew 1:21,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The angel of the Lord told Joseph that the baby within Mary was for our sins. Peter mentions the same thing, "and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 and live to righteousness; for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 For you were continually straying like sheep,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Guardian of your souls" (1 Pet. 2:24-25). Amen! Therefore, When we stand in front of the cross we need God's forgiveness. We have to feel that we are a sinner. Recognizing who we are is a key element that is manifested at the Lord's Table.

Jesus' death is real love to real sinners. There's no other place in all of creation where one can find God's salvation love than at the cross of Jesus Christ. God's love and grace is real,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Amen! The extent of God's love is shown in the fact that Christ died for humans in whom there was

nothing that evoked that love,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Rm. 5:8). The evidence, the proof of God's love is found in the death of His Son, Jesus Christ. The sorrow and bitterness at Calvary Mountain shows us God's love. His divine love, because He fulfilled His lovely plan to save His creation. God's plan of salvation was finished on the cross, so that its effect could now transfer to others. Knowing God's love through the death of Christ must be apparent at the Lord's Table.

Jesus' death shows us the value of even one lost soul. He paid the price in front of God's eyes for the sins of mankind. Each lost soul is so important, so expensive because Jesus sacrificed His life for it. Can you imagine the sheer joy in heaven over the lost

soul that has come home? Can you imagine the sadness in heaven over the lost soul that doesn't come home? "So it is not the will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that one of these little ones perish" (Mt. 18:14). Amen! It is our obligation, once we have received God's precious gift, to share it with others. Discerning the value of life at the Lord's Table helps us to proclaim Jesus' death.

My dear Choong Hyun, proclaiming Jesus' death is the only way of saving others. Why? Because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12). Amen! We have to proclaim the name of Jesus. Whoever partakes of the Lord's Supper has to proclaim His death. It's the only way we can save others. The Lord's Supper is a reminder of the death of Christ and of its sacrificial character in our behalf, a symbol of our vital connection with the Lord, and a testimony to His second coming. The Lord's Supper is a means of inspiring the faith and love of the believer as he or she reflects again upon the wonder of the Lord's death and the fact that those who believe in Him will live everlastingly. Come, let us join together today at the Lord's Supper and proclaim His death, so that we can be God's instruments in bringing in the lost sheep. 🌿



김성관 목사

주의 죽으심을 전파함

(고전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한 이들의 의무

주님의 만찬은 참으로 엄숙하고도 행복한 축복입니다. 이 만찬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라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를 위한 구속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축복을 받을 사람들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만찬 상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예수의 죽으심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목합시다.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

- 죄의 문제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고전 15:3).” 아멘! 예수의 죽으심은 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진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마1:21).” 주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 뱃속

주님의 만찬은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동시키는 도구입니다.

에 있는 아기는 우리의 죄를 위한 아이라고 전해 주었고,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벧전 1:24-25).”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은 주님의 만찬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

- 죄인을 위한 사랑

예수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한 참 사랑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 중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아멘! 하나님의 넓은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

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증거됩니다. 갈보리 산 위의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주님의 만찬에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

- 한 영혼조차 귀함

예수의 죽으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조차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 값을 치렀습니다. 각각의 잃어버린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비쌉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

다. 집으로 돌아온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천국에서의 더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14).”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을 일단 받은 이상,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의 만찬 상에서 생명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죽으심을 전파하도록 도우줍니다.

성찬을 통한 재림의 소망

사랑하는 중헌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행 4:12). 아멘!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만찬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를 위한 그의 희생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생명의 연결에 대한 상징이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동시키는 도구입니다. 나오십시오. 오늘 중헌의 성도들도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여 우리도 없는 양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사용되게 하신 주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4**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그 땅을 사랑하도록

이 경 희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너무나 부족하고 이리저리만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방글라데시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의 그릇이 너무 부족하기에 그 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하루, 순간 순간을 저의 가난한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저의 마음 속에 그려 두었던 잊지 못할 그림들을 지금 이 순간 다시 꺼내어 봅니다.

먼저 사라 선교사님이 세우신 F.F. Mission School에서 만난 열무팡이 떠오릅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열무팡이 무슬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열무팡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열무팡을 개종시킬 수는 없지만 저의 기도가 언젠가는 열무팡을 해신다 할에, 인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이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23살의 여교사를 만났습니다. 1996년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집에서 쫓겨난 자매는 혼자 어렵게 대학교를 다니며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매를 보며 저의 배우는 믿음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크리스천이세요?" 하며 제게 다가왔던 6살 소녀 멜로디가 생각납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그려진 동전 크기 만한 메달을 저의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멜로디의 믿음이 기독교인을 명시하며 천대하는 사회의 속에서도 굳이 지켜지길 기도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딸로서 성장하는 멜로디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공항에 가기 바로 전 한인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형제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방글라데시에 온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 땅을 향해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비록 저의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땅을 사랑하고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한 단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것은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준비된 심부

정 현 주 (방글라데시 단기 평신도 선교사)



12월 출국을 예정으로 준비하던 단기선교가 조금씩 늦어진다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그로 인해, 내년 일년은 방글라데시에서 하나님과 만날 것을 기대했던 나의 마음이 많이 복잡해져서 하나님께 참 많이 물어보았다. '하나님, 가아합니까? 왜 이렇게 더디 진행됩니까?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요?'

대학부 금요 철야기도회 때였다. 나는 여전히 '저는 가아합니까?' 라는 기도제목으로 씨름하고 있었다. 그 날의 성경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23절.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이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가야하는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던 그 날,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현주야,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솔직히 나는 내가 방글라데시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다.'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어디서든지 그 사랑으로 양을 먹고도 치면 된다는 것이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내 마음에 어떤지를 물으시는 그분의 질문에 나는 내가 얼마나 일 중심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 사랑의 시작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참으로 이리서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내가 방글라데시로 향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온전히 알기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이제는 훈련이든 이룸으로 모이는 하루 하루가 기대된다. 나의 연한함을 드러

내시고 만져주시는 그 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까? 사역의 주인이, 그 땅을 사랑하는 것이, 그 땅을 향한 걸음이, 나로 시작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한 걸음 내딛고 난 후, 아직도 내가 자랑스러워질 때가 많음을 고백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보다 여호와와 것이로다". 만물의 주만자, 나를 그리고 함께 가는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분을 신뢰하며 따르는 하루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방글라데시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나눔을 위해 영어와 벵갈어를 배우며, 준비된 심부의 참된 기쁨을 기대한다.

어느 성도의 아름다운 선교현금

(출연교회 직원으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모이는 물결을 선교현금으로 바친 한 성도의 편지입니다)

위 금액을 세계 선교 건축에 바칩니다.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정성을 바칩니다.

○○○목사님, 그 동안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니 혼자 전할 수 없었ాయి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윤 해 군 (집사, 2교구)

'동주'라는 기도모임에서 손선홍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손집사님이 그때 당시 외선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늘 함께 외선부를 위해 기도 하셨습니다. 3년 전, 고등부에서의 봉사가 4년째 되는 해였기에 새로운 부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손집사님께서 '국내 외국인 선교부(외선부)에서의 봉사를 저에게 권유 하셨습니다.'

외선부에 들어와 제가 첫 번째로 맡은 학생들은 스리랑카인들였습니다. 처음, 그들이 사는 경기도 광주로 심방을 가서 그들의 속주와 일하는 공장을 둘러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형제들의 순수하고 예절 바른 모습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차츰 속주와 도박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아오는 모습은 저에게 참 기쁨과 보람이 되었습니다. 외선부를 접하며 한국에 찾오는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선교의 한 가지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길을 저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8명의 스리랑카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어려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걱정했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공부 시간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신앙을 통해 저의 모든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로 인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 더욱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외국인 형제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서도 전도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출현 성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기도회

일시 : 27일(월) 18:30

장소 : 만나홀

대상 : 선교위원, 실명위원, 외선부교사, 단기선교 참가자, 선교 관심자

13기 LMTC(총회선교훈련원) 평신도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 3월 3일~6월 23일

교육비 : 5만원(문화 납부 가능)

선교파송 대상국 : 아프리카, 동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수단, 인도

문의 : 선교위원회(567-9544, gwwj@unitel.co.kr)

제3기 1년 단기 평신도 선교사 모집

모집기간 : 수시

모집대상 : LMTC 수료자

제출서류 : 봉사부서장 추천서, 교구장 추천서

지역국가 :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나의 시계는

장 재 성 (청년2부)

나의 시계위치는 현재 13시 30분!
 막 태어난 아이는 새벽 6시에 해당되고
 아침 7시 30분은 초등학교 1학년
 아침 9시는 중학교 2학년
 오전 10시 10분은 고등학교 3학년
 오전 11시는 대학생
 낮 12시는 사회 초년생
 낮 1시는 서른
 오후 3시 30분은 마흔 여덟
 오후 5시는 쉰 다섯
 오후 6시는 예순
 밤 8시 15분은 일흔 하나
 밤 9시는 일흔 다섯
 밤 10시 20분은 여든 둘
 밤 12시는 아흔



나의 시계는 13 : 30분을 막 지나가고 있다. 예수님 제림의 때를 어느 누구도 알수 없는 이 때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쫓으며 바빠 움직이는 지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게 한다
 혹시 당신의 시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잠자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 : 36)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 (계 22 : 14)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이 옥 렬 (청년2부)

고등학교 시절에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와 교회에 나가자고 밖에서 계속 기다렸다. 그러나 나는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그 후 두 친구 중 다른 한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다. 그 일도 있고 해서 교회에 몇 번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학교 대표로 태권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기에 태권도 시험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던 내가 믿겠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 성적도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나는 나의 창조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창조주가 누군가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영생에 대한 갈망하는 말이 간절했다(전3:11). 그래서 뭔가를 믿어야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전철 안에서 그제야 수업을 배우면서 알게 된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때 교회든지, 천주교든지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부르심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내 입에서 자연스레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다. 며칠 뒤에 교회에서 다시 목사님을 만나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소책자를 받아 읽으면서 믿어보아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막상 처음으로 믿겠다고 맘을 먹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반신반의 하면서 나갔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실까?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난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다. 의심 많고 무엇하나 하려면 이리저리 앞 뒤 헤아리고 결정하는 매우 소심하고 웅충한 나였기에 믿겠다고 교회에 나갔지만 일단은 성경을 한번 이상 읽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실히 믿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참석하라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흥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때라 망설이다가 참석하면 좋다는 말에 순종하였다.

궁중에 풍성하여 하나님의 의심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을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킨 것이다. 그렇게 영생을 갈망하는 나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믿음이 온 것이다. 그때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기쁨은 이어지고 있다. 이 기쁨 때문에 지금도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믿음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지만 어느덧 나의 의심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각종 집회에 참석을 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며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나의 신앙은 자라나갔다. 그런데 한쪽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다. 다른 성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환상을 보았다. 방언을 받았다는 등의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나에게서는 왜 이런 것이 없었는지 나도 그런 것이 주어지면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말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말씀을 내할 때에 내가 이런 제헌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나를 본교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20:29).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했어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보여 주셨고(롬1:19),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 주셨고(요14:9). 또한 천지자들을 통해서 보여 주셨다(눅16:29). 더 이상 창조주가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죄조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것을 알게 하셨다(전12:13).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믿음을 가지고서 늘 걷게 하시고 큰 기쁨을 주신 주님께 내가 원하는 한가지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 판평

글·그림 장민/(minj74@jaangminn.com)

도마의 장인들만이 만능 '손'을 합니다.



장인들의 만능 '손'을 살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일합니다.



저나네! 나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력'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참합시다.

보고 싶은 별

박 진 회 (청년2부)

- (I) 나 물래 창가에
소리 없이 앉은 저 별

초롱 초롱 빛나는
무엇을 말함이라나

내 마음 알 길이 없어
잠 못 이루고

어련 듯 미명 속에
가리워진 내 내이며
- (II) 이 생각 저 생각
별님 생각

내 마음 깊은 곳엔
별고동 소리

곧없이 부푼은
내 가슴 속엔

오늘밤도 찾아와 줄
별님 생각 뿐

— 나에게 찾아온 주님께 대한 열망을 그린 사—

따뜻한 이야기

우리 아이들 교육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금 옥 연 (성도, 7교구)

★ 양효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엡6:18)

1교구 남연준 성도(여55세) 대장암 말기로 하혈이 심해 고통중입니다.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교구 김양녀 집사(여73세) 신부전증으로 관상동맥 절단 연결수술 후 영동세브란스 중환자실에 입원중이고, **성옥경 권사(여97)** 골절 수술로 영동세브란스 63병동 605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고경중 성도(남41세)** 간암, 직장암, 대장암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 410호실에 입원해 있으며 불면증과 황달 증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니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당신 자신만을 위한 기도도 그리도 많지요, 주님은 그 뒤에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러 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작은 아이 겨울 수련회가 다가왔다.

"오 어머니, 내일 중등1부 수련회인데 내일 아침 8시 30분까지 상가 앞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와 함께 교회 데리고 갈게요."

"고맙지만, 우리 아이는 학원 전도도 그렇고...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성가대도 그만 해야겠어요."

그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이 스친다. 우리 교회는 소년부까지의 의욕이 넘치고 찬양대도 자원학생이 많아 오디션을 봐서 뽕을 정도인데 왜 중등부만 되면 찬양대에 학생이 줄어 지휘자, 음악과장 선생님이 찬양대에서 달라고 학생에게 사정해야 되고, 수련회 참석인원도 줄어드는지...

물론 이제 중학생이 되어 부모님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나이가 되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회개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이들이 이 중학생만 되면 부모님들이 먼저 조조해서 하나님과 교회 중심에서 학교, 학원 중심으로 마음을 옮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많은 믿음 좋은신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으셨지만.

나의 경우도 올해 큰아들이 중등부를 마치고 고등부로 올라간다. 부족하나마 매순간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기 위한 수많은 갈등과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고백한다.(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승리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

이절뿐 부모인 나나 남편은 우리 아이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천배 만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부딪히는 벽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중학교에 들어갔다고 남들 다 보내는 종합학원을 보내니 학원들이 왜 주일 날 반편성고사를 치르는지 학원에 몇 번 전화해 토요일로 옮겨달라고 사정해도 시정되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어야 될 때도 있었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담임선생님(한 학교에 한 두분 있을 수 있는 분)을 만났을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이나 카우시는 아이니 선생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해낼 거라고 선언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일 등등. 물론 종합학원을 계속 다니면 학교 내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특목고로 진학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과 행함을 외면하시거나 모른체 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신에 많은 감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과에 정확하게 합격하게 하셨다.

우리 아이의 길을 지도하심을 보여 주셨다. 그럼에도 오늘도 또 갈등한다.

꼭 다니고 싶은 영어학원에서 주일 10시에 입학하기를 위한 시험이 있다고 한다.(송과, 강릉주 특목고 아이들이 거의 다 다니는 영어학원임) 또 전화로 사정을 해 보았지만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휩쓸려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라고 하신다. 부모님의 믿음만으로도 자녀의 믿음만으로도 뚫고 나가기 어려운 영적 싸움인 것 같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야겠고 조바심을 내지말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시도록 우리 자녀들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 같다.

내 믿음의 친구

2주간의 실적

정 선 현 (대학부 부감, 가브리엘 찬양대)

인생의 후반부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찾아내어 그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적어보아면 얼마든지 적을 수 있지만, 내가 잘 하는 것을 적으려면 그리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그렇기보다는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라한다) 넓게 비교할 때에는 그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학부를 섬기게 되어, 토요집회 후의 늦은 귀가를 핑계로 82년부터 봉사해 오던 가브리엘 찬양대를 2주간 쉬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쉬는 것을 허락하실 것마다 확신했고, 또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합리화 시켰습니다. 평소, 주일이 아침에 늦잠을 잘 수만 있다면 일주일간의 피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투덜대면서도 1부 찬양대원에게 보내주시는 주위의 격려와 찬양대를 해야한다는 의무감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8년간 고참 대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꾸준히 섬겨왔던 찬양대를 쉬게 된 것이지요.

그토록 오랫동안 내가 위해왔던 주일새벽의 단잠 2시간, 5분씩 잘라서 자도 24분이 나 깨었다가 또 잘 수 있는 그것을 호호해하면서 웃을 지어던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 것은 미련하게도 성가대를 그만 둔 지 2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뭔가 꼭 해야할 일을 못해 불안해하는 모습, 편한 잠을 잔다고 느끼던 건열된 생선, 내가 실직 당하면 하고있는 모습, 모두 나와의 상관없이 일들이 피부르느라지고 있었고, 찬양대연습시간에 맞추어 새벽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그렇게 사탕하듯도 더 사랑함을 안타까워하는, 대원들이 누구 할 것없이 잠자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 생선 보관 위에 토막된 생선처럼 죽어있는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요?"
"정말 저에게서 일을 뱌으실 건가요?"
욕심이 많고, 지기도 싫어하고, 세상적인 하고 싶은 것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잘하는 것 한가지 찾아볼 수 없는 나에게 유일하게 그 중 제일 괜찮다고 느끼게 해 주신 것 찬양!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평생직업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실직하러했던 기간이 2주일 이기가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면 평생 실직할 뻔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배 판 웅' 성도를 소개합니다



"아내(이영순 집사)가 전도하여 가끔 예배드리다가 자신도 종교를 갖고 싶어서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하겠다고 생각했다. 새가족부 집회에 참여하면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것이 생명을 얻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열심히 믿음생활 하겠다."

'김도연' 성도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잠시 교회의 주일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그 후 스스로 성당에 다니며 영세까지 받았으나 어머니, 언니, 친구들이 모두 개신교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기쁘고 즐겁다. 교회에 나오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주일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한옥성 (새가족부 통신원)

사랑부 7년차 보고서

권 시 은 (사랑부 교사)

권시은 선생님



대학에 갓 입학해 의욕 넘치던 저는 사랑부가 제게 충성할 부사라고 생각하고 친구와 함께 이 곳에서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일대일로 맡았던 동맹이는 10살난 자폐아였습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자신에만 갇혀 살아가는 동맹이에게 제 존재를 인식시키기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맹이와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던 처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서 저를 찾아내고 달려오는 그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동맹이가 어느새 저의 키를 훌쩍 넘어 커 버렸을 때, 저는 직장일로 인해 사랑부를 떠나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제가 다시 사랑부를 섬기게 된 지금 참 변한 것이 많습디다. 잘 알려진 철부지 대학생 선생님이 어느새 노치니 선생님이 되었고, 성가대가 조직되어 있었고 분반공부도 체계화되었습니다. 예배실도 넓어졌고 설교말씀을 위한 도구로 컴퓨터가 사용됩니다. 전에는 기어다니던 학생들도 이제는 뛰어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부 안에서 나누는 사랑과 기도입니다. 사랑부 선생님들은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부 안에서 사랑을 배운다고.....

일본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김 정 근 (집사, 에바다부)

지난 해 7월에 이어 이번 1월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의 오이타 지역으로 농아인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 일 주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록한 날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지극된 사역을 생각해보면 결코 짧지만은 않았던 기간이었다.

우리의 사역은 전도, 주일에 교회초청장치를 마련하여 새신자를 만나서 일, 신앙교육, 신앙생활 상담을 통한 결신의 약속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조를 나누어 지난 7월에 전도받은 사람들 가정을 섬겼다. 미리 연락을 하고 준비한 심방이라, 가정마다 음식을 준비하여 우리들을 반겨주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은혜가 있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그 곳 농아인 협회의 협조를 얻어 우리 새비바와 연극 교류회를 가졌다. 이틀간 약 200명의 농아인들이 참석하여 우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되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미리 준비한 전도지와 말씀으로 이틀간 열심히 전도하자 주일에 교회에서 꼭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주일 아침, 합박눈이 내렸다. 서울을 풍광 열거했던 시베리아의 찬공기가 오이타에게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파와 색이 다 차는 바람에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영생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시고 우리 선교단원들은 한복을 입고 특별찬양을 드렸다. 이 날 새벽 교회에 온 사람은 27명이었다. 100명분의 점심을 준비했지만 부족하여 선교단원들은 뜻밖의 급식을 하게 되었다. 단원들은 '별지 않



아도 배가 부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식사 후의 대화 시간동안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다. 한국어-일본어-일본수와 세 단계의 통역을 거치는 커뮤니케이션이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월요일 낮에는 김치 강습회를 개최하여 (불신자들이 오었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후 원하는 가정을 섬방하여 전도하였고, 밤에는 오이타 신문사와 농아인 협회의 협조를 얻어 한일문화교류회라는 이름으로 또 한차례 모임을 가졌다. 불신자들과 교회성도를, 그리고 우리선교단이 함께 이야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 농아인 협회는 선교활동을 강력하게 반대하던 지난 해 7월과는 다르게 매우 우호적이었다. 화요일은 마지막 모임으로 새신자들을 만나 결신을 약속하고 밤에는 오이타농아인 교회에서 '감사의 밤'을 준비하여 함께 식사하며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마치는 날 아침, 지금까지 우리 선교단을 위해 일주일간 차량을 준비해 주며 함께 움직여 온 오이타 농아인교회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다음에는 일본의 농아인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더 좋은 선교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간의 설렘 없는 사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선교지의 새신자들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질리의 생

'에스더(Esther)'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 중에서 한 편의 드라마나 소설 같은 책을 말하라고 한다면 '에스더'가 적당할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격게 되는 총체적인 난관을, 결단력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게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이나요? 믿을 수 없으시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은 알고 계시지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7차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그대로 남아있던 유대인에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기고 또 똥 후가 되게 하신 것은 정말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야말로 '남은 그릇'이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으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즉,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에스더'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hashu에 왕, 하만,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에, 이 네 사람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성품이 빚어내는 모습들이 각자 다르답니다. 특히 하만은 유대 민족을 모두 죽이기 위해 온 일반 달란트를 내놓게 됩니다(3:9). 이 돈은 약 95억여원이 되는 큰 액수인데, 이 제물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귀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듯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은 모든 시대에도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 인물들의 특성과 행동을 자세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곳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요? 하만은 출애굽을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출 17:8-16, 신 25:17-19).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 왕국시대에도 계속 되었지요(삼상 15장, 대사 4장). 이 민족적인 싸움이 지금 포로 시대에도 나타난 것이랍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이나 죄를 의미하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의 싸움은 선 악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인 셈이지요. 그러므로 마귀가 이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용기있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답니다. 오늘 날에도 하나님을 용기있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모르드게와 에스더, 아니 왜 그리스도처럼 죄와 싸우는 참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해 보시길 있었습니까?

(김동희 목사 출판국지도)

내외의 그리스도의 편지



언뜻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중국에 사는 사촌오빠 내외가 몇달 전 귀여운 아들을 낳았다.

어른들의 하시는 말씀을 듣자니 새인니의 태교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새인니는 결과물 음식이 아기의 자궁발달에 좋다면 지속적으로 호도를 먹었는데 출혈할 때면 점질을 까서 가방에 넣어 다니며 먹었다고 한다. 게다가 중국어가 능통한 데도 아기의 영어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만삭 때까지 영어학원을 다녔다. 아기가 태어난 후 먹을 것도 어떤 회사의 분유와 이유식이 좋은지 꽤 신중해서 조사·계획하고 선택하여 먹이고 있다고 한다.

나의 대단했던 입맛이 끝나자 주위로부터 새인니를 비롯 태교에 열심있었던 다른 이들도, 아기의 두뇌성장과 성격발달에 좋다는 태교법 등의 정보들이 끊임 없이 쏟아져들어왔다. 입맛과 그 이후의 육체적 피로를 견뎌가며 살피는 것도 힘겨웠던 내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소식들로 다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일매일 말씀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워 하고 있던 나였다.

'우리 아이가 태교 태안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영력을 못하거나 학습능력이 떨어지면 어쩌나, 난 호도도 안먹었고 이제서야 영어학원을 다니자니 좀 늦는 감이 없지 않...' 하는 근심과 아기에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믿음의 친구들에게 물어도 보았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평안함과 소망, 기도의세를 주셨다.

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기 우리 모두를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는 아기에 대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부모님 우리는 그 계획의 하나님께 여럿가며 계획의 성취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아기가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새삼 마음이 높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장해갈 것을 생각하니, 아기에 대한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그 욕심대로 안되면 어쩌지 하는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아기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위해 우리 부부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혜원 기자)

